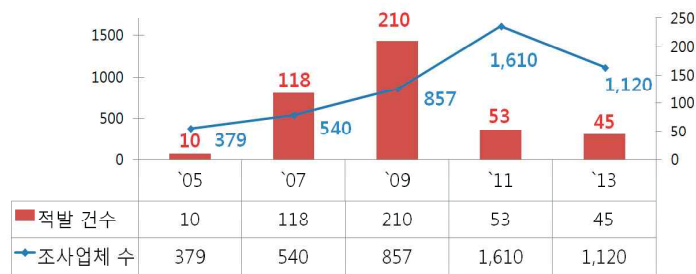


## 요 약

### 1. 종자유통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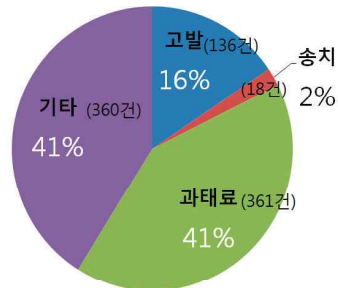
- 조사업체 수는 '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, 이후 감소추세임
    - '12년부터는 조사업체 수를 줄이는 대신에 신규 종자업등록업체 및 종자관리사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종자유통제도의 홍보·계도를 강화하였음
  - 연도별 적발 건수는 '09년에 가장 많았으며 이후 감소추세를 보임
    - '12년부터 도입된 특별사법경찰(이하 특사경) 업무에 따라 시정경고 등의 단순적발 보다는 종자업 미등록 등의 수사업무에 집중한 결과로 추정됨
- \* 적발건수에는 고발, 송치, 과태료, 가격미표시 등 시정권고사항 포함

[ 종자유통조사 업체 수 및 적발 건수 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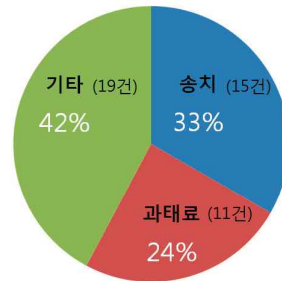


- 적발내용(누적)은 과태료 > 기타(시정권고) > 고발 > 송치 순으로 많으며, '13년에는 기타(시정권고) > 송치 > 과태료 순으로 나타남
- '12년 4월 특사경 도입 후 당해연도에는 송치(국립종자원에서 수사) 3건, 고발(경찰에 수사의뢰) 20건이었으나, '13년에는 고발 없이 송치만 15건으로 증가하였음

[ 적발내용별 구성비('05~'13년, 누적) ]



[ '13년 적발내용별 구성비 ]



○ 적발내용별 세부내용

- 고발 : 무보증 씨감자를 판매한 행위가 대부분
- 과태료 : 과수묘목 품질미표시, 채소종자의 발아보증기한 경과가 대부분
- 기타(경고, 시정권고) : '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종자판매상의 가격표시제가 점차 정착되어 적발건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

□ 전 망

-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활성화로 공익신고 증가 예상, 이로 인해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·수입판매 신고는 증가 될 것으로 추정
- 고품질 종자를 원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종자 생산업체에서는 종자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가, 국립종자원에서는 유통종자의 품질표시(품종명, 발아율 등)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기능 강화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

## 2. 종자업등록

□ 종자업 등록 현황

- 작물군별 : 과수 > 기타(특용작물 등) > 채소 > 화훼 > 버섯 > 식량 > 빵 순으로 등록 건수가 많으며, 과수의 경우 전체의 30% 차지
- 규모별 : 종자업 등록업체 중 법인(312업체)은 23%, 그 외 일반업체는 77% (1,056업체)
- 시도별 : 종자업등록은 경기(195업체, 14%) > 경북(178업체, 13%) > 충북(157업체, 11%) > 경남(134업체, 10%) 순으로 많으며, 경기는 화훼가, 경북과 충북은 채소의 종자업 등록이 가장 많음

[ 종자업 등록 구성비('13년까지 누적) ]

